

HeiQ사, 소취 가공 기술 개발



스위스의 헤이큐(HeiQ)사는 고성능 섬유제품 개발의 혁신 선두주자로 최근 HeiQ Fresh Tech 제품군의 신제품 'HeiQ Fresh NKU'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제품은 독일에서 열리는 Techtextil 박람회에서 소개된다.

기존에 개발된 방취 원단들은 주로 세균성 땀 대사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불쾌한 신체 냄새를 제거한다. 이와 달리 이번에 소개되는 'HeiQ Fresh NKU'는 신체 냄새 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터의 플라스틱 냄새와 같은 휘발성 악취를 격리시킨다. 구체적으로 단량체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폴리에스터의 플라스틱 냄새 또는 자동차의 합성물질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같은 수많은 성가신 휘발성의 악취를 제거한다.

'HeiQ Fresh NKU'의 기술은 알루미늄 실리카 미세입자를 표면기능화한 흡착제 입자를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신속하게 격리시킨다. 불쾌한 휘발성의 악취 화합물은 원단에 가공된 입자의 표면에 흡착되어 비휘발성으로 변하여 지각할 수 없는 냄새 화합물이 된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모든 섬유 소재에 적합하지만 특히 폴리에스터 원단에 적합하다.

'HeiQ Fresh NKU'는 반복된 가정 세탁 시험에도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섬유 소재에 따라 100회 세탁 까지 100 % 성능을 유지한다(HeiQ 홈페이지 참조).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소취성 시험(deodorant efficacy test)에 따라 시험한 결과에서 암모니아 및 아세트산 가스와 같은 유기화합물 감소율의 결과를 얻었다.

♠ Fibre2fashion 홈페이지(2017.05.04)